

# “구인사 개산 70주년 대중불교에 매진”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  
1월 16일 신년 기자회견

대장경 판각불사 추진  
장경각 건립 불사 계획  
명상포교 프로그램 강화  
어플로 사찰행사 생방송



규모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재 일본에 전문가들을 보내 관련 자료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성되면 장기적으로 팔만대장경 전체를 판각하는 대규모 불사로 이어갈 생각입니다. 이와함께 구인사 경내 도서관 자리에 일체의 경전을 봉안하는 장경각도 건립할 것입니다.”

이어 춘광 스님은 선센터와 명상포교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단양에 건립중인 천태종 국제선원과 분당 대광사 전통명상수련센터는 거의 완공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운영할 컨텐츠가 필요한 상태이지요. 이에 청주 명장사와 논산 금강대 국제선원과 연계해 명상 상담 등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광사에 (사)행복명상을 설립했습니다. 이 단체를 통해 지자체와 기관을 중심으로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응용한 대중명상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입니다.”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온라인 영상 포교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춘광 스님은 “2월부터는 앱만 다운 받으면 구인사, 관문사 등 천태종 주요 큰 사찰 행사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중산 기관인 금강신문 전용앱을 통해 중산 소식을 빠르고 신속하게 접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주일 기자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춘광 스님은 구인사 기념 행사에 대해 △국제학술대회(6월 19일~21일) △합창음악예술회(6월 19일, 단양 구인사) △상월월간대조사 일대기 교성곡 공연 및 합창제(10월 31일, 부산 삼광사) △구인사 역사기록 특별전(6월 20일~7월) △천태종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등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주요 불사 계획에 대해서도 피력했다. 춘광 스님은 “국가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우리 조상들이 대장경을 제조했듯이 천태종도 국운융창을 위해 우선 소의경전인 <묘법연화경>부터 2년 정도 계획으로 28품을 전통 대장경판본 그대로 판각하는 불사를 올 상반기중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아마 양면으로 펼치면 120~130장 정도

“올해는 우리나라가 광복된지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지만, 우리 천태종도 총본산인 구인사가 개산 7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국제학술대회와 음악제, 역사 기록 특별전, 개산 70년사 기록물 간행 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구인사 창건의 의미를 알릴 계획입니다.”

대한불교천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사진)은 1월 16일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회의실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사업 계획을 이같이 밝혔다.

춘광 스님은 “총본산 중심제로 운영되는 천태종 상황으로 보면 개산 70주년을 매우 큰 경사이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며 “구인사와 천태종을 동시에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부적인

# “내년 창종 70년위한 새불교운동 전개”

진각종 총무원장 회정 정사  
1월 20일 신년 기자회견

4대 지표 14대 과제 발표  
전 진언행자 포교사화 운동  
가족중심 교화확대 강화



내년에 창종 70주년을 맞는 대한불교 진각종이 토대마련의 일환으로 올 한해 진각 새불교운동을 펼친다. 진각종 총무원장 회정 정사(사진)는 1월 20일 서울 하월공동진각문화전승관 4층 대회의실에서 올해 4대 총책지표와 14대 지표별 과제를 발표했다.

총무원장 회정 정사는 “창종 70년을 앞두고 올해부터는 그동안 진각종 70년 역사를 돌아보며, 진각 100년 및 그 이후의 비전을 심도있게 구상해야 할 때”라며 “올 총책지표로 ‘진각 70년, 제 2기 진각새불교운동의 토대 마련’으로 정해 새불교운동의 의미를 확실히 정립하고 전 진언행자가 포교사가 되도록 교화에 새 바람을 불어 일으키는 교화역량 확대를 골자로 4대 지표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즉 진각새불교운동의 토대 마련을 위해 신도 조직을 재정비하고, 의식을 강화해 포교 역량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생각이다. 이에 지난해 교구포교사제를 신설한 진각종은 올해 자성동이 및 청소년 포교사, 국제포교사 등 연령·직능별 포교사를 세분화해 전 신도가 포교에 앞장서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세부전략으로 가족결연제도 확대할 계획이다.

그동안 가족중심 교화를 펼친 진각종은 ‘가족’ 개념을 현실서 인연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도 관리에 온라인 콘텐츠 활용 실효 사상 선양 위해 워패션 설치 △심인당별 상호회 운영 △신도 노후보양시설 수용 확대 등도 전개한다.

회정 총무원장은 “가족불교는 종조때부터 진각종 핵심 사상이었다”며 “진각가족결연 확대를 위해 청소년 국내의 연수 기회 확대, 대학생 대상 희망장학제도 개선, 관

홍상제와 관련한 상호회 활성화와 조상을 모시는 추복전 마련 등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조상 위패를 모시는 추복전은 진각문화전승관 뒤편에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회정 총무원장은 4대 총책지표로 △진각 70년사 정리(책자 발간 예정) △교화조직 및 환경 혁신 △진언행자 결집 및 의식 재무장 △시대 교화역량 확대 등을 발표했다.

이에 따른 세부 실천 14대 과제는 △진각 70년사 정리 △진각 천년의 비전마련 △총무조직 혁신 △신도교도 자원의 교화적 활용 확대 △신행활동 혁신 △교구활성화 및 특성화 △신규 심인당 설립 △총무행정 의사소통 체계 개선 △전 진언행자 포교사 화 기초 마련 △진각 가족결연 확대 △다양한 신행문화행사 개발 △스마트 포교 △소통과 나눔의 정신 사회적 공유 △지역교화역량 확대 등이다. 특히 지난해 천안 이어 올해는 동안, 평택, 용인, 일산 등 수도권 지역에 심인당을 개설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남북불교 교류와 관련해 회정 총무원장은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북한과의 조선불교도연맹과 평양에서 공동 법회 및 학술세미나 개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 “실천이 본래 마음을 빛나게 한다”

종단협, 1월 16일 조계사에서 신년하례법회

한국불교 대표 종단 지도자들이 2015 신년을 맞아 한국불교의 발전을 기원하는 법회를 봉행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 이하 종단협)는 1월 16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종단협 회장 자승 스님(조계종 총무원장), 부회장 도산 스님(태고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천태종 총무원장), 회정 정사(진각종 총무원장)를 비롯해 각종교 회회 정각회장,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신년하례·축원·법어·인사·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장 자승 스님은 신년 법어를 통해

“단결과 화합을 위해서는 내 것을 먼저 내려 놓아야 한다”면서 “내 주장을 비우면 전도된 가치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욕심을 버릴 때 이웃이 보이고, 내 것을 나눌 때 행복의 길이 열린다”고 강조했다.

부회장 회정 정사도 신년 인사에서 “자신을 낮추고, 남을 이해하고 존중할 때, 우리 사회는 더욱 성숙되고 발전된 사회로 나아갈 것”이라며 “올 한해도 불법을 널리 흥포하는 데 진력을 다해 혼란스러운 사회를 정화하고 이 땅을 불국토로 만들기를 염원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법회에 참석한 대중은 신년 발원을 통해 공생의 세상이 도래하기를 부처님 전에 기원했다. 신성민 기자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 이하 종단협)는 1월 16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신년하례법회를 가졌다. 사진은 법회 직후 기념 촬영 모습. 사진=노덕현 기자

# “조계종 승가교육 심화·확대시켜갈 것”

교육원장 현웅 스님, 21일 신년 기자회견

‘지혜·자비 구현위한 교육’ 강조  
표준교육과정 개편·학점제 추진  
학인 외국어 스피치 경연 개최  
교육 행정 전산화로 효율 높여

조계종 7대 교육원이 지난 5년간 추진해 온 승가교육 혁신 사업을 심화·확대시켜 나간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를 위해 승가대학 교과과정을 개편하고 4급 승가고시 전산화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간다.

교육원장 현웅 스님(사진)은 1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스님은 교육원의 운영 기조로 ‘지혜를 이루고 자비를 실천하는 승가교육’을 내놨다.

현웅 스님은 “지난 5년 간 교육원이 추진한 각종 승가교육 사업이 현대적 승가상 구현에 있었다면 향후 5년간 열어가자 하는 교육원의 사업 또한 이러한 문제의식을 유지하고 심화·확대하는 데 있다”며 “각종 사업은 최종적으로 불교의 양대 덕

목인 ‘지혜’와 ‘자비’로 회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승가대학 교육과정 변화다. 교육원은 승가대학 표준교과과정을 36과목에서 34과목으로 조정하고, 동영상 교육 콘텐츠를 추가 제작한다. 또 교육행정 서류철을 간소화하고 연 2회 학장스님 간담회 및 워크숍을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한다.

교육기관 학점제도 추진된다. 그간 개별 교수사 스님들의 코멘트에 의존했던 평가가 아닌 학점제를 도입해 교육 평가의 내실화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웅 스님은 “학점제는 학인 스님들의 교과 이수 순서를 조정하는데 도움이 되고 학사 운영에도 효율적인 것”이라며 “교육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2016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여법하고 품위있는 승가상 구현을 위해 청규, 불교윤리에 대한 교육이 현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를 위해 국선원수좌회가 편찬한 ‘조계종 선원규’와 종단채신위원회가 성안한 ‘조계종 청규’를 교육 현장에 배포한다.

신성민 기자

# 관음종 창종 50주년 법회 10월 7일 봉행

다큐 제작 등 사업 추진

관음종이 올해 창종 50주년을 맞아 10월 7일 기념 대법회를 연다.

대한불교관음종(총무원장 흥파 스님)은 1월 15일 총본산 종로 낙산 묘각사 낙가선원서 중앙종회를 열고 10월 7일 오후 2시 동국대와 장충체육관 인근서 ‘창종 5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할 결의했다. 또한 이날 종회에서 확정된 주요 사업으로는 △관음종 50년사 정리 다큐멘터리 제작 △관음종 법맥 정통성 확립을 위한 연구논문 수록 학술대회 및 출판기념회 △총단사 제작(이승만 박사 왜색불교 타파 교시 발표이후 관음종 창종 역사적 배경 등 기록과 사진 수록) 등이다.

이외에도 관음종은 창종 50주년을 맞아 종단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산거제도 시행(연수교육) △해외포교(라오스 라오코리안대학 자매결연 추진 예정) △종단 및 말사 활성화를 위한 순회법회 또는 간담회 △주말법회 시행 등 9가지 세부 정책도 발표했다.

한편 관음종은 올해 예산으로 총 47억 1천만원의 결핵했으며, 사업계획도 함께 심의 의결했다. 김주일 기자

# 동국대학교 109년 역사에 슈퍼 갑질 웬말인가?

## ■ 최고위 승려들의 슈퍼갑질 갑질

109주년 역사의 모교 동국대학교가 대한불교조계종 수뇌부 5명의 승려에 의해 유린당하고 있다. 자승 총무원장, 일면 호계원장(동국대 법인이사 겸임), 현웅 교육원장, 지원 포교원장, 성문 중앙총회장은 제18대 동국대 총장 선임과정에 부당 개입하여, 총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김희옥 현 총장(1순위), 한보광 불교대 교수(2순위), 조의연 영문과 교수(3순위) 중에서 이사회 의결(2014.12.16)을 거쳐 선임하는 민주적, 자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2014년12월11일 코리아나호텔 오찬에 김총장과 김정년 재단 이사장을 불러 놓고 “한보광 스님을 차기 총장으로 시킬테니 (김)총장님은 쉬시라”고 압박하였다. 이에 김총장과 조교수는 사퇴하였고 한보광 후보만 남겨 놓고 총장선임 시도를 강행하고 있다.

## ■ 도약하는 동국대학교의 위기

25만 동문들과 재직 교수/교직원, 양식 있는 고승대덕 스님들과 불자들은 이런 폭거에 경악하면서 전국대학 종합평가 10위 내 진입을 눈앞에 두고 (\*2010년 17위, 2012/13년 13위, 2014년 11위로 상승 중) 망연자실하게 되었다.

동국대학교살리기비상대책위원회, 총동창회, 총학생회, 교수협의회 등 동국인들은 이에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사과 △민주·자주적 총장 선임 절차 재개 △승려유주 재단 이사장의 개편 등을 강력 요구했으나 한달이 넘도록 다섯 수뇌부 승려들은 묵묵부답으로 사태 해결을 외면하고 있다.

## ■ “논문 표절 교수가 대학총장이리나?”

- 조계종 총무원 다섯 중직 승려들과 한보광은 참회하고 사과하라.
- 동국대학교 발전을 가로막는 역사의 죄인은 되지 말아야 한다.
- 한보광 후보는 최근 불거진 30여편의 논문표절 의혹을 시인하고 네 번째 시도하는 “총장 자리의 병”에서 벗어나라.
- 슈퍼갑질 5인방에 가담한 일면 동국대 법인이사는 즉각 사퇴하라.

25만 동문들과 동국인들은 불법 부당한 총무원의 교권유린 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 10대, 세계 100위권 대학의 꿈을 이루고 3대 사학의 전통과 자부심을 사수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5. 1. 22

# 동국대학교 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운영 합장

[역과/대] 국어국문학과동창회 영어영문학과동창회 일어일문학과동창회 사학과동창회 철학과동창회 윤리문화학과동창회 수학과동창회 물리학과동창회 화학과동창회 통계학과동창회 법학과동창회 정치외교학과동창회 행정학과동창회 북한학과동창회 경제학과동창회 국제통상학과동창회 사회학과동창회 경찰행정학과동창회 경영학과동창회 회계학과동창회 농학과동창회 생물학과동창회 인학과동창회 식품공학과동창회 농업경제학과동창회 건축학과동창회 컴퓨터공학과동창회 정보통신공학과동창회 전자공학과동창회 토목공학과동창회 화학공학과동창회 산업공학과동창회 교육학과동창회 국어교육과동창회 역사교육과동창회 지리교육과동창회 가정교육과동창회 체육교육과동창회 연극영화학과동창회 미술학과동창회 한의과대학동창회 의과대학동창회 [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동창회 행정대학원동창회 교육대학원동창회 인문정보대학원동창회 문화예술대학원동창회 국제정보대학원동창회 불교문화대학원동창회 사회과학대학원동창회 [지역] 직할경주동창회 부산광역시동창회 인천광역시동창회 대구경북동창회 대전충남동창회 광주전남동창회 경남동창회 전북전주동창회 충북청주동창회 제주동창회 강남서초동창회 강릉동창회 고양시동창회 구리남양주동창회 성남시동창회 수원시동창회 용인시동창회 하남시동창회 [해외] 미국뉴욕동창회 미국뉴저지동창회 미국IL동창회 미국텍사스동창회 캐나다동창회 중국북경동창회 중국상해동창회 중국천진동창회 중국칭더동창회 [직능/전문] ROTC동창회 4.19혁명동창회 6.3동창회 7.27동창회 공인회계사동창회 교육방송국동창회 구농동창회 근로장학사동창회 동국59회 동국708회 동국신학회 동국오너스클럽 동국조각회 동국회 동대신문사동창회 Dongguk Post(영자신문)동창회 동덕회 동덕회 미당회 상수회 수요신학회 서울중등학교관리자동창회 야구부동창회 해동회 축구OB회 야구OB회 농구OB회 레슬링OB회 외

이 광고는 동국대학교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성금으로 게재하였습니다. 뜻을 같이 하는 25만 동문, 불교계 사부대중들의 동참과 격려를 호소합니다.

후원계좌 : 국민은행 006001-04-281990 이운영 (동국비대위)